# 동국대 경주캠 학생들 97% "이전 찬성"

## 총학생회, 재학생 대상 설문 진행 결과

**교통 · 인프라 미흡에 불만**
**주거 불안도 이전 요인로**
**학교 '先학사개편'에 방점**
**폐과 학과들 반발 확산 중**
**"소통 · 절차 무시 없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지난 1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가 발표한 감사보고서에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동국대 경주캠퍼스 이전' 을 주문한 데 따른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동국대 경주캠퍼스 재학생들의 절대 다수가 이전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학생회는 이사회의 감사보고서 발표 직후인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결과를 SNS를 통해 2월 1일 공개했다.

5일간의 조사 기간동안 재학생 1046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1023명인 97.8%가 경주캠퍼스 이전에 찬성했다. 반대는 2.2%(23명)에 그쳤다.

이전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교통과 주변 인프라 미흡, 주거 불안정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대학가라고 하기에는 교통과 인프라가 형성돼 있지 않고, 주변 석장동의 원룸 가격이 부산 · 울산 등과 비슷할 정도로 높다는 것이다. 또한, 500만원 정도되는 원룸 1년 임대비용을 월세가 아닌 사글세 형태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높았다.

경주 지역 사회에서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이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당장 주낙영 경주시장이 자신의 SNS계정에 "지방대학이 어렵기는 다 마찬가지인데 자구노력이 우선되어야지 무슨 뜬금없는 캠퍼스 이전이냐"며 "경주시는 의과대학을 비롯한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이전에 단호히 반대하며 일체의 논의를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학생회는 지역구성원인 학생들을 배제한 입장에 대해 반발했고, 주 시장의 사과와 함께 △자취방 실태 조사 및 개선 △교통편 개선 △대학가 활성화 등을 경주시에 요구했다.

이후 경주시는 답변서를 통해 석장동 원룸 임대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 노력을 비롯해 △노선 개편 시 학교 의견 반영 △공영자전거 시스템 도입 △시장과의 좌담회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처럼 학생들의 이전 요구가 높지만, 학교 측은 '학사 구조 개편' 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시대에 맞는 경쟁력 있는 학과와 지역 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학과를 우선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월 19일 법인 이사회 직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사회 수요에 따른 학제 개편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지역과 상생하겠다"면서 "캠퍼스 이전은 장기적인 관점에 이뤄질 방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폐과 대상으로 포함된 과학기술대학 신소재화학과, 의생명공학과, 빅데이터 응용통계학과와 불교대학 한국음악과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학과들은 2월 24일 성명서를 내고 "절차 무시한 일방적인 폐과 통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학과들은 "학교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4개의 학과를 폐과하고 뷰티메디컬학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치위생과, 스포츠의학과 등을 신설하려 한다"면서 "폐과 대상이 된 신소재화학과, 의생명공학과, 빅데이터 응용통계학과, 한국음악과의 학생회는 소통 없는 일방적인 통보에 부당함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편은 어느 때보다 소통을 중시하며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왔고, 현재 총학생회 · 학과대표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학교 측의 입장이다.

관계자는 또 "이번 학사구조 개편은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2021학년도 신 · 편입생은 학습권을 보장하여 졸업 시까지 입학 당시 학과가 유지된다"면서 "전공 선택권을 보장해 희망자는 특별전과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 3월23일 개원

### 호계원장 · 포교원장 선출

조계종 제220회 중앙종회 임시회가 3월 23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신임 호계원장 · 포교원장 선출의 건이 예정돼 주목된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는 2월 24일 '불기2565년도 의장단 · 상임분과위원장 · 특별위원장 · 종책모임 회장단 제13차 연석회의' 를 열고 임시회 일정을 확정했다.

제220회 임시회 안건접수는 3월 16일까지, 종책질의 마감은 3월 18일까지다.

임시회 주요안건으로는 조계종 호계원장 및 포교원장 선출의 건이 있다. 호계원장 무상 스님의 임기가 3월 26일, 포교원장 지홍 스님의 임기가 3월 14일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종헌 개정 및 종법 제 · 개정 특별위원회' '대한불교진흥원 관련 특별위원회' 등 종단 현안과 관련한 특별위원회 구성도 논의될 예정이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교육원은 2월 25일 '2021년도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인증서 수여식' 을 봉행했다. 사진은 인증식 수여 후 신규단체 4곳과 모범단체 2곳이 단체촬영을 하는 모습.

# "올해도 '승가결사체' 활동 기대합니다"

## 조계종 교육원 2월 25일 인증서 수여

**대행보현회 등 신규 4곳**
**사회실천 등 27곳 활동**

조계종 스님들의 전법교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승가결사체가 올해도 27곳이 인증받아 활동을 펼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진우)은 2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2021년도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인증서 수여식' 을 봉행했다.

올해 승가결사체 인증 단체는 총 27곳으로 신규 단체는 4곳이 새로 인증됐다. 신규단체로는 △대행보현회 자비애빵(대표자 묘담) △자비실천 병원포교단(대표자 지인) △희망드림(대표자 원명) △해운대구 천초 작은도서관(대표자 묘덕) 등이다.

대행보현회 자비애빵은 군법당과 교도소, 소외계층에 빵을 전달하는 포교를 하고 있으며, 자비실천 병원포교단은 교육을 통한 병원지도법사를 양성하는 등 병원 포교를 담당한다. 해운대구 천초 작은도서관은 청 · 장년세대를 대상으로 문화강좌를 진행하며, 희망드림은 김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비행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재인증 받은 단체는 △광주전남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 △담마브릿지 △안양계 △언더스탠 △칠불회 △대구불교호스피스센터 △EM지구사랑 작은실천 등이다.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교육부장 서봉 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2018년 첫 시행 후 올해로 만 4년째를 맞았는데 승가교육과 불교중흥을 위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올해도 27곳을 인증단체로 선정했다"면서 "한국불교의 미래와 우리사회를 더욱 환하게 밝혀 나가는데 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 6기 화쟁위원회 위촉…위원장 호성 스님

## 조계종, 2월 22일 위원 20명

### 동은 · 진경 스님 · 조형일 대표 등

조계종이 제6기 화쟁위원회 위원 20명을 위촉하고 갈등 없는 사회를 위한 활동에 나섰다. 6기 화쟁위원장은 호성 스님<사진>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2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제6기 화쟁위원장 호성 스님과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6기 화쟁위원회는 각 분야의 중진 스님과 재가, 전문가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승가 위원은 위원장 호성 스님과 삼정사 주지 원소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 스님, 삼척 천은사 주지 동은 스님과 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화평 스님, 법련사 주지 진경 스님,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신공 스님, 불교사회연구소장 원철 스님,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 심적정사 주지 혜범 스님 등이다. 재가위원은 조형일 한국갈등조정연구소장과 박사 북칼럼니스트, 허우성 경희대 비폭력연구소장, 김선아 감독,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등이다.

원행 스님은 "화쟁의 가르침이 더욱 간절하게 필요한 때"라며 "종단과 불교발전에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화쟁위원장 호성 스님은 "각종 사회갈등과 분쟁 속에서 화쟁의 이름으로 통합과 화합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위원들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지희 기자

# 화엄사, 주지 후보선출 위한 산중총회

**3월 19일 경내 화엄원서**
**3월7~9일 주지후보 등록**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덕문)가 3월 19일 차기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한다.

화엄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각일)는 최근 산중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3월 19일 오전 1시 화엄사 화엄원에서 산중총회를 개최하고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의 건' 을 다룰 것을 공표했다.

화엄사 주지 후보자 등록기간은 3월 7~9일이다. 법계 종덕 이상, 연령 만 70세 미만의 비구로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했거나 말사 주지로 8년 이상, 중앙종회의원으로 4년 이상, 중앙종무기관 및 종법령에 의해 설치된 산하기관,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으면 주지 후보 자격이 주어진다. 또 선원법에 의해 규정된 전문선원에서 20안거 이상 성만했거나 교육법상 인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교역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도 인정된다.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 구성원은 법계 중덕 이상의 화엄사 재적승, 화엄사에서 2년 이상 상근한 국장 이상 종무원으로, 화엄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4회 이상 참여한 스님, 화엄사 본말사 주지로 재직 중인 스님 등이다. 또 화엄사에 4년 이상 주민등록 등재가 돼 있고 산중총회 개회일 전 4년 이내 교구 선원에서 8안거 이상 성만했거나 결계 · 포살을 8회 이상 참여한 경우 구성원 자격이 주어진다. 거주승 신고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1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이며, 구성원 명부 열람기간은 3월 10일부터 12일까지다. 061)783-7600

송지희 기자